

『삼천리』 게재 홍운봉 항해 여행기 연구

김 호 주*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홍운봉 항해 여행기의 서술기법과 그 시각 |
| 2. 홍운봉 항해 여행기의 내용 양상 |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를 소개하고 그 가치와 의의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에 내용적 구성을 살펴본 뒤 그 서술형식과 서술 시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홍운봉 항해 여행기의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홍운봉의 여행기는 항해를 다니면서 당시 노동의 문제와 시대 상황을 포착하고 제국주의의 모순과 자본주의의 양면성에 대해 고발한다. 항해 사이기 때문에 조선 바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는 식민지 조선인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낯선 외부 세계로 향하는 탈(경계)조선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식민지 조선인이면서 동시에 세계인의 시선으로 제국주의를 경험한다. 홍운봉의 여행기에는 일반적인 마도로스의 시선

* 안동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여행객의 시선을 차용하기도 하며, 제 3의 타자 시선을 보여주기도 한다. 홍운봉의 여행기에는 일어난 사건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풍경과 삶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관철이란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다. 그의 여행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계급의식에 대한 불만과 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이다. 그는 강한 자와 약한 자, 강대국과 약소국, 침략자와 침입자, 자본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등으로 나누어 그 사이에 담겨 있는 폭력과 권력의 모순을 고발한다. 하지만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그가 일본 국적 선박의 선원이라는 점, 항해의 끝에 일본으로 돌아가며 안도하는 부분을 볼 때 홍운봉은 계급 갈등에서 명백하게 무산노동자의 시선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민족 갈등에서는 조선의 자리를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홍운봉 여행기가 서술 시각 면에서 보여주는 두드러진 특징은 식민지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일본 선박의 선원이 되고, 바다를 일상적으로 여행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생겨난 독특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당대 대부분의 여행기가 '피식민지 조선인의 시각'에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모순을 고발한 것인 데 반해 항해사였던 홍운봉은 조선(인)에서 벗어나 세계(인)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로 인해 그의 여행기에는 조선인의 시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이고 중립적 시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에는 1930년대의 사회상과 국제정세를 알 수 있고 당시 가치관과 이념을 담고 있으면서도 독특한 개성적 시각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이 홍운봉 항해 여행기가 가지는 큰 의의라고 판단한다.

주제어 : 홍운봉, 『삼천리』, 제국주의 지배 공간 확장, 자본주의 확산, 항해 여행기, 제국주의 양면성, 무산노동자, 계급주의 의식, 민족 갈등

1. 머리말

1929년 6월, 신문기자이자 시인이었던 파인(巴人) 김동환이 발간한 종합 월간지 『삼천리』는 당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인기 종합지였다. 창간호에는 “1. 훗신 값이 싼 잡지를 만들자 2.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또 버릴 기사라고 업는 잡지를 만들자 3. 민중에게 이익 되는 조흔 잡지를 만들자”¹⁾라는 편집상의 근본 방침을 싣고 있으며 이런 방침이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면서 대중지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삼천리』가 일제 치하 가장 성공한 대중지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김동환의 돋보이는 기획력 때문이었다. 『삼천리』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끌 만한 내용은 잡문이나 특집란을 기획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창간호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기획²⁾ 아래 안재홍의 과학자 세계 진출 권려 논설,³⁾ 허헌의 세계일주 여행기⁴⁾ 등을 실어 당대 대중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었다. 여행기가 인기를 얻자 『삼천리』는 여행기 지면을 매호마다 할애할 만큼 여행기 소개에 적극적이었다. 『삼천리』는 과학자 여행기, 마도로스 여행기, 무용수 여행기 등 다양한 직업을 둔 인물들의 해외 여행기를 실어 당대 독자들에게 인기 있는 잡지가 되었다.

『삼천리』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삼천리』 여행기에

-
- 1) 삼천리사, 『社告』, 『삼천리』 제1호 1929.6.
 - 2) 『삼천리』에는 미스코리아 선발 행사, 세계 여행 소개 등 당대 대중들의 호기심을 끌만한 내용들은 다양한 특집을 기획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 3) 홍운봉의 여행기에서는 1920년대와 같이 계급 이념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지는 않으나 무산자 노동 현실의 모순을 발견하고, 제국주의 이념을 에둘러 비판하고 있다. 1920년대 여행기와 대비하여 1930년대 홍운봉의 여행기가 특징적인 것은 1920년대 만연했던 민족의식의 고취와는 무관하게 제국주의 현실 고발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의 시각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1920년대 계급 이념에 대한 논의는 김효주, 『1920년대 여행기의 존재 양상』, 『국어교육연구』 48집, 국어교육학회, 2011 참조.
 - 4) 김효주, 『1920년대 여행기에 나타난 미국 인식과 표상-허헌·허정숙의 미국 여행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9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대한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⁵⁾ 1932년 3월 『삼천리』 제4권에 흥미로운 여행기가 실린다. 마도르스(madoros) 홍운봉이 쓴 항해 여행기이다. 홍운봉의 여행기는 1930년대의 사회상과 국제정세는 물론 그에 대한 가치관과 이념 지향 등을 진중하게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논의된 바가 없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를 소개하고 그 가치와 의의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홍운봉은 지금까지도 그 행적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여행기를 『삼천리』가 여러 차례 게재했다는 것은 의외의 일이다. 『삼천리』는 당시 정치·사회·문학 영역의 저명인사나 대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필진으로 초빙하였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생하게 보도함으로써 대중적 잡지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⁶⁾ 이러한 편집 취지를 고려할 때 『삼천리』가 무명의 홍운봉의 글을 여러 차례나 게재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다.⁷⁾

일본과 인도, 유럽을 오갔던 해외 화물선박인 k환(丸)을 탔던 마도로

5) 천정환, 「초기 『삼천리』 지향과 1930년대 문화민족주의」, 『민족문학사연구』 36, 민족문학사학회, 2008; 이경돈, 「삼천리의 세(世)와 계(界): 설문과 순례의 서사들」, 『대동문화연구』 4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허민, 「『삼천리』 편집 후기의 텍스트성과 ‘대안적 공론장’으로서의 대중잡지」, 『민족문학사연구』 50집, 민족문학사학회, 2012; 성현경, 「1930년대 해외 기행문 연구: 삼천리 소재 해외 기행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홍순애, 「총력전체제하 대동아공영권과 식민정치의 재현: 『삼천리』 기행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6) ‘국토’를 표상하는 제호와 표지 그림이 상징하듯 초기 『삼천리』는 문화민족주의를 자신의 기본 지향으로 삼았다. 가장 좌측에서 민족해방운동을 벌였던 세력을 제외한 다양한 민족주의 좌, 우파의 인사들이 『삼천리』에 글을 썼고, 1930년대의 상황에서 『삼천리』 대중적 민족주의의 유력한 진지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천정환, 앞의 논문, 212쪽 참조.

7) 『삼천리』는 저명인사는 물론 화제가 될 만한 인물의 동정이나 일화들도 소개하고 있는데 『삼천리』 전편 어디에서도 홍운봉과 관련된 기사를 찾을 수는 없다. 이는 당대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스 홍운봉이 어떤 계기에 의해 『삼천리』에 여행기를 게재하게 되었는지, 홍운봉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지금으로는 정확하게 단정내리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삼천리』를 구독하는 홍운봉이 투고의 형식으로 『삼천리』에 글을 보냈다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계속 연재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홍운봉이 『삼천리』 기자나 편집진 사이에 알려진 인물이었는데, 그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연재했을 가능성이다. 홍운봉에 대한 당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단정내리기는 어렵다.

비록 홍운봉이 무명이긴 하였지만 『삼천리』가 마도로스의 항해 여행기를 실은 것이 의외의 일은 아니다. 먼저 1930년 전후 우리나라 문단에서 여행담론이 중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행담론은 기행문과 답사기, 순례, 탐사 보고서들을 통해 민족 경쟁을 위한 문화운동으로, 일상의 취미와 유희로, 또는 제국과 식민지의 저항과 타협, 협력의 모순된 과정과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전유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 여행담론들은 풍경을 소요하는 유한의 장르가 아니라 당대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포섭하는 역동적인 장르가 될 수 있었다.⁸⁾

1930년대 식민지 문단의 분위기를 편승하여 『삼천리』는 대중에게 ‘국제’의 소식, ‘국제’의 문명, ‘국제’의 정치를 이야기 하였다. 조선과 비슷하게 식민지 상태에 있던 필리핀이나 인도, 베트남, 아일랜드 등의 자치와 독립 문제, 민중 운동 관련 기사를 다루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러시아의 문명을 소개하는 글들과 여행기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였고,⁹⁾ 이를 바탕으로 200개가 넘는 해외 여행기가 『삼천리』에 게재되었다. 이와 같은 1930년대 문단의 여행담론에 대한 관심과 『삼천리』의 외국 형편에 대한 호기심어린 편집 방침, 대중적 관심을 끌 만한 대중적 소재의 확보 의욕 등으로 항해 여행기가 창작되었다.¹⁰⁾

8) 홍순애, 앞의 논문, 308쪽.

9) 장영은, 『금지된 표상, 허용된 표상: 1930년대 초반 『삼천리』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2집, 상허학회, 2008, 204쪽.

본고에서는 홍운봉이 『삼천리』에 게재한 항해 여행기¹¹⁾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1932.3.)¹²⁾, 『印度洋上에 날리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1932.5.15.)¹³⁾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¹⁴⁾

일반적으로 말해 배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승선한다. 관광이나 여가를 즐기는 여행객과 직업상 일을 수행하기 위한 직업 여행객, 그리고 뱃일을 하는 마도로스이다. 여행을 위해 배를 탄 사람들은 낯선 장소와 타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감탄의 시선을 보낸다. 그에 반해 마도로스는 여행객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지만 배 안팎의 풍경을 일상인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홍운봉의 여행기에는 일반적인 마도로스의 시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행객의 시선을 부분적으로 차용하기도 하며, 제3의 타자 시선을 보여주기도 한다.¹⁵⁾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에는 일어난 사건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세계

10) 항해 여행기는 여행기의 일종이면서도 나름의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 항해 여행기의 작자는 여행의 주체이면서도 일(직업)의 주체이다. 항해 상황을 중시하며, 여행하는 타자를 대상화하여 관찰할 수 있다. 나아가 주로 육지로부터 떠나있으며,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상황이나 처지를 환기하고 진단하고 판단하는 지점을 확보하고 있다.

11) 『삼천리』에 연재된 홍운봉 항해 여행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제 목	항해 일시	삼천리 게재 호	삼천리 게재 년 월	비고
印度洋上마도로스되어	1931	4권3호	1932.03.01	
印度洋上에 날리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	1931~1932.02	4권5호	1932.05.15	
南米「리오港」- 各國 港口의 獵奇行		7권1호	1935.02.01	
佛國馬耳塞港 - 各國 港口의 獵奇行		7권5호	1935.06.01	

12) 홍운봉,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3.1.

13) 홍운봉, 『印度洋上에 날리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 『삼천리』 제4권 제5호, 1932.5.15.

14) 홍운봉, 『各國 港口의 獵奇行, 南米 「리오港」』(1935.1.1.), 홍운봉, 『各國 港口의 獵奇行 佛國馬耳塞港』(1935.6.1.)는 지면을 달리하여 다룰 것이다.

15) 그동안의 여행기가 ‘피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민족적 시선에 치중되었다면 직업상 조선을 떠나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마도로스 홍운봉은 이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각지의 풍경과 삶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관철이란 시각에서 포착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홍운봉 항해 여행기의 내용 양상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축조하기 위해 사용한 서술 형식과 그 서술시각 등을 해명하고 홍운봉 항해 여행기의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홍운봉 항해 여행기의 내용 양상

1) 기착 항구에서 견문한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

서구에서 창작된 여행기는 17세기 이전 여행기와 그 이후 창작된 근대 여행기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7세기 이전 여행기의 주된 특징이 우주형상지적(宇宙形象誌的; cosmographique) 서술이라면 18,9세기 근대의 여행기들은 민족지적(民族誌的; ethnographique) 유형의 서술이다. 민족지적 서술은 현장에 가서 그 사물들을 직접 눈으로 본 뒤 돌아와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생활, 관습, 문화를 기록한다.¹⁶⁾ 서구지역의 경우 민족지적 서술의 목적이 ‘식민지화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였다면 조선과 같은 비서구 지역의 민족지적 서술의 목적은 새로운 문명에 대한 호기심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식민지 제국주의의 횡포를 고발하는 것이었다.

제국주의(imperialism)는 “한 국가가 다른 비슷한 집단들에 대해 행하

16) 17세기 이전 여행기의 주된 특징인 우주형상지적 서술은 하늘과 땅, 동물과 식물에 대한 묘사들이 인간 그리고 인간의 문화적, 사회적 산물들에 대한 묘사와 밀접하게 얽혀 있는 서술 방식이다. 낯선 지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는 기괴한 동물이나 식물들, 반인반수의 괴물들이 주로 등장한다. 그리고 대개의 곳이 안전하고 조화로운 기독교 세계에 비해 신비로우면서도 위험하고 낯선 힘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묘사된다. 조현범, 『문명과 야만-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책세상, 2002, 42-43쪽.

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정치적, 경제적 지배와 통제, 또는 그러한 지배나 통제를 확립하려는 충동이나 노력, 성향¹⁷⁾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서구 열강들의 만남도 역시 이러한 제국주의 침략으로 점철되었다.¹⁸⁾ 특히나 조선 해운의 발달은 제국주의 근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문호 개방 이후 일제는 조선의 상품을 수입하고 원료를 강탈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운교통을 확장시켰다. 한일 합방 이후에 국내 해운은 대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일본인에 의해 독점되는 경향이 강했다.¹⁹⁾ 특히 마도로스 홍운봉이 여러 편의 여행기를 남긴 1930년대 초기는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국제도시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언어가 혼종 되어 있다. 직업적으로 그런 상황을 자주 목도하는 홍운봉은 다양한 문화나 인종에 대한 경이나 호기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대신 그가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사이에서 내재되어 있는 계급논리이다. 홍운봉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강대국과 약소국, 침략자와 침입자, 자본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등으로 끊임없이 나누어 그 사이에 담겨 있는 폭력과 권력의 모순을 고발한다.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삼천리』제4권 제3호, 1932.3.1.)는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 중에서 『삼천리』에 가장 먼저 게재된 작품이다. 이 여행기에서는 봄베이(孟買)를 떠난 k환(丸)이 처음으로 기착한 뽀-트셋땡함 항구에서의 견문을 다룬다. k환(丸)은 봄베이에서 면화를 싣고 출항했다가 항로 중간쯤인 뽀-트셋땡함에서 대판(大阪)행 고철 2,000빈(噸)을 선적하기 위해 기착한다. 항구에 기착한 시점에 여행기에서 가장 먼저 언

17) 조현범, 앞의 책, 22쪽.

18) 위의 책, 22쪽.

19) 박명규, 『해양 마케팅의 마도로스 대중가요에 대한 역사적 고찰-조선·해운을 중심으로』, 『연구논문집』 8, 한국해양대학교 부설 해양과학기술연구소, 1999, 4쪽.

급한 것은 ‘모국의 소식을 전하는 신간잡지’와 ‘부모처자 또는 애인에게서 온 편지’이다. 홍운봉의 여행기에는 대조의 시선이 빈번하게 설정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편지를 받은 선원과 그렇지 못한 선원의 대조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홍운봉은 1931년 만주사변의 여파가 그곳까지 미친 것에 주목한다. 그가 여기서 주목하는 사실은 중국 노동자들이 일본선 화물 하적을 보이콧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인도 노동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정박일수도 4,5일 지체되었다. 제국주의 전쟁 현장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목도하기 때문에 제국주의 전쟁의 심각함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에서는 자신이 지닌 계급 문제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특히나 홍운봉의 계급 인식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노동자의 죽음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에서이다.

어떤 날 이 미숙련 勞働者인 한 人夫가 第5番 艙口에서 10餘尺되는 中艙의 墜落되어 頭部 及 左腕在脚의 重傷을 當하여 一命을 끈게되었다. 회사의 대변인들은 異口同聲으로 원인이 人夫 자신의 부주의로부터 생겨 따고 하며 雇主의 책임을 피한다. 그러면 安價의 賃銀을 얻으려다가 그 人夫 자신의 부주의로 一命을 일케 되었는가? 하나 晝夜 長時間의 勞働過重으로 인하여 疲勞의 過度가 원인이 아닐가?²⁰⁾

중국 노동자를 대신하여 부두에 하적작업에 투입되었던 미숙련 인도 노동자가 선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배 지주들은 노동자 인부의 부주의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홍운봉은 노동자 인부의 사고 원인을 장시간 과중 노동으로 인한 피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고용주의 책임을 되묻는다. 덧붙여 그 노동자의 개인사를 소개한다. 생활고를 못

20) 홍운봉,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3.1.

이긴 그 청년은 20년 전 부모를 따라 말레이반도로 이민 와서 힘든 삶을 꾸려가다가 부모를 잃고 ‘할 수 없이’ 부두 임시 노동자가 되었다는 점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인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세금과 지주의 횡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²¹⁾ 이 부분에서 홍운봉은 노동자에 대한 연민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인도 노동자에 대한 홍운봉의 연민은 싱가포르에 정박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²²⁾ 홍운봉에게 제국주의 모순은 자동적으로 계급 모순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홍운봉은 ‘뿌르조아지’와 ‘무산대중’을 대립시킨다. 영국은 말레이반도에서조차 인도인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말레이반도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높은 세금과 지주의 횡포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 이 사실을 소개하며 그는 ‘간디’가 인도 뿌르조아지와 지주를 위해 싸울 뿐 무산대중을 위해 싸우지는 않는다고 역설한다.²³⁾

또 화교인들의 본토인 자본 착취 문제에 대해서도 고발한다. 이 부분에서는 식민지 인민들에 대해 연민을 표출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부르주아들의 문제점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한다.

21) 이러한 필자의 어조는 인도인의 수장 사태를 목격한 의학도 정석태의 여행기와 대비되는 양상을 띤다. 정석태는 인도인의 수장 사태를 안타까움으로 지켜보면서 인생의 참의미를 되물어보고 유학자로서의 자신의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향이다. 이에 반해 홍운봉의 여행기에는 계급(집단)의 문제로 문제를 확장한다. 정석태 여행기에 대해서는 정석태, 『대해양의 비극, 인도양에서 인도 청년 수장기』, 『삼천리』 제4권 제8호, 1932. 8.1.

22) “印度人은 太槲錫蘭島에서 온 移民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自由勞働者다. 埠頭의 人夫들도 印度人이다. 汽船艙内の 見番이 조금이라도 油斷을 주면 貨物을 竊取한다. 그럼으로 水夫들의게 마음껏 毆打를 당하는 때도 있다.” 홍운봉,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3.1.

23) “馬來半島에서 농사를 하여도 高率한 세금과 지주의 횡포뿐이다. 英吉利는 馬來半島에서도 印度人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간디-가 印度국민을 위하여 싸우지 안느냐?고 물은 즉 『홍! 간디-가 印度無產大衆을 위하여! 아니다. 인페리인 간디- 一派는 印度 뿌르조아지와 地主의 대변인이다. 혁명적 無產大衆은 간디-와는 無關係라고』 한다. 彼는 對는 말의 더 對하지 않는다.” 홍운봉,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3.1.

南洋一帶 어느 항구를 가든지 中國人の 商人과 勞働者가 本土人보다 우월한 세력을 펴고 있다. 그럼으로 南洋一帶의 華僑가 업고 보면 各國 帝國主義者들의 殖民政策에 지장이 생긴다는 말도 있다. 華僑奸商의 중간착취로 인하여 本土人에 경제력이 점점 미약하여 감은로— 此港도 교통기관만은 朝鮮보다 편리하다. 이와 가튼 小都市라도 정돈된 市區 하수도 아스팔트에 도로 소리업시 닷는 자동차 朝鮮 首都 京城보다 교통기관만은 발달되었다. 편리한 교통기관도 殖民地 人民을 위하여야는 아니다. 享受하는 者는 다만 殖民地 뿌르조아지와 그들 뿐이다.²⁴⁾

인용문에서는 편리한 교통기관이 식민지 인민이 아니라 인민부르주아 계급의 점유물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중국인의 존재가 다른 나라 노동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남양(南洋) 어디를 가든 중국인 상인과 노동자가 본토인보다 우월한 세력을 펴고 있으며, 화교가 각국 제국주의의 식민정책에 공조하고 있다고 피력한다. 뿐만 아니라 화교 중간착취 상인의 중간착취로 인해 본토인의 경제력이 더욱더 미약해진 점을 고발한다.

민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홍운봉이 인도 순경에게 물으면서까지 일본인 상점을 찾아가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상점 주인은 만주사변 이후로 공포에 싸여 있고 중국인 폭도가 언제 침입할지 모르며 일본 상품 배척 선전으로 인해서 장사가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한다.²⁵⁾ 그는 일본 상인이 처한 곤경에 대해 오히려 연민을 가지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족과 민족의 반목은 萬里異城의 와서도 融合치는 안는다. 數

24) 홍운봉,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3.1.

25) 홍운봉의 여행기에는 항해 일정의 변동과 당시 시대상을 연관시켜 밝히고 있다. 정박 일자가 4.5일 지체된 원인이 일본과 중국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힌다. 만주사변(滿洲事變)은 중국과 일본의 무력 충돌로써 일본이 중국을 병참기 지화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다. 당시 일본군은 류타오거우(柳條溝事件)에서 만철 선로를 폭파하고 난 뒤 이것이 중국 측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였다. 이로 인해 타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으며 중국인들이 일본인에 대한 불신은 커져갔다. 이 무렵 해외 중국인들은 부두와 선박 인부들의 일본선 화물을 보이콧한 사건이 일어난다.

千年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 문제는 무엇으로써 해결을 할고.”라고 밝히며 민족 문제를 지적한다.

민족 간 반목과 제국주의 문제는 상해 기항을 앞두고 더 촉각이 곤두 선다. 주산열도(舟山列島)부터 세계 각국의 거선(巨船)의 그림자가 빈번히 출현한다. 상해에 입항할 때 각 나라의 군함거포(軍艦巨砲)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상해에서 깊은 밤에도 ‘양수포 포동 공장지대’의 노동자의 소리와 모터 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을 본다. 홍운봉은 이것을 ‘미래의 역사에 고하는’ 소리로 규정한다. 그리고 만주사건 이후로 일본에 대한 배척이 심해지고 있다고 밝힌다.

선내에 있는 공고판에는 시국을 고려하여 공무가 아닌 선원은 일체 배에 상륙하지 말 것을 경고하지만 중국 상인들은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배 안으로 들어와 장사를 한다. 상해 전 지역에는 일본 물건 배척 운동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K환(丸)과 같은 회사 소속 선박 3,4척도 휴항하고 있으며 350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있기도 하였다. 이런 상해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세계 각국 물품들이 상해 시장으로 몰려들어 경쟁적으로 팔리게 되고 그 결과 물가가 엄청나게 저렴해졌는데, 홍운봉은 이것을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해석한다. 나아가 이성에 굶주린 선원들이 선실에서 음매부(淫賣婦)들과 성욕을 채우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매춘부들이 ‘습격’을 했기 때문이라는 일반적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1회 2,30 전(錢)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에다 에누리까지 해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가 뽀-트셋땡함에서 말레이시아(馬來人)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데서 그친다면 『印度洋上에 날 나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는 상해에서의 매춘을 자본주의 사회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제기한다.

苦力과 揭貨機의 騷音중에도 船室의서는 異성에 주린 船員들과 淫賣婦들과의 性慾을 取引하고 있다. 上海港口棧橋의 汽船이 도착되면 양구 마도로스는 淫賣婦들의게 襲擊을 받게된다. OO1회 2, 30錢의 安價에도

가게네가 있는 거슨 물론이다. 彼女들은 破廉耻를 이저버리고 享樂的으로 『肉の切り賣り』는 하지 안는다. 광을 구하기 위하여—뿌르 道學者들은 可憐한 彼女들의게 罪를 입필나고 하나 이것도 또한 資本主義社會制度에 一産物이다.²⁶⁾

인용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춘 여성들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홍운봉은 그녀들이 파렴치 하지 않고 향락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밝히며 이들 역시 자본주의 사회제도의 한 희생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국주의 군함과 대포가 제국주의 침략을 상징한다면, 상해에서의 매춘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성적으로 관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운봉이 제국주의 침략을 매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²⁷⁾ 여기서도 제국주의에 의해 침략당한 민족의 상황보다는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되고 수탈당하는 하층 여성 계급의 처지에 더 강렬한 연민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2) 무전신문을 통한 세상 인식

k환(丸)은 뽀-트셋뎡함을 출항하여 싱가포르(新嘉坡), 홍콩(香港), 상하이(上海)를 거쳐서 고베(神戸)에 이르기까지 항해를 계속하고²⁸⁾ 이 과정에서 홍운봉은 바다와 항구의 풍경, 바다와 항구에서의 경험을 관찰하여 서술한다. 이러한 대조적 서술 사이에 특별한 장치와 내용이 개입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전신문(無電新聞)이다. 항구를 제외한 육지의 소식

26) 홍운봉, 『印度洋上에 날니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 『삼천리』 제4권 제5호, 1932.5.15.

27) 이 점은 홍운봉은 또 다른 항해 여행기인 『南米 리오港, - 各國 港口의 獵奇行』(『삼천리』 7권 1호, 1935. 2.)과 『佛國馬耳塞港 - 各國 港口의 獵奇行』(『삼천리』 7권 5호, 1935. 6.)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데 그 양상에 대한 검토는 후고로 미룬다.

28) 『印度洋上에 날니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는 ‘於南洋사이판港 洪雲鳳’이라며 송신 장소를 명기하고 있다.

중 대부분이 무전신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홍운봉은 다섯 번에 걸쳐 무전신문의 주요 소식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다른 선박과 충돌한 8중산(重山) 환(丸)의 익사자와 생존자에 대한 내용이다. 조난선 보도를 접하면 선원의 가족들은 몹시 불안해 하지만 홍운봉은 이에 대해 특별한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럴 때마다 불안한 감정을 누르지 못하면 선원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에서 금(金) 수출을 금지한 소식과 미(米)·영(英)·불(佛) 삼국이 일본의 금주(錦州) 공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군부가 삼국의 간섭이라고 단호히 반격했다는 소식이다. 전자에 대해 홍운봉은 금수출 금지든 금 재수출이든 ‘노동자 농민’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홍운봉은 여기에서도 노동자 농민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戰爭說論으로 실내 空氣를 흐리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박 내 선원들의 논쟁을 소개한다. 셋째는 인도 서북방 국경지방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던 ‘赤샷스’ 당 수령 ‘아부람 갓시칸’이 일본 관헌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내용이다.²⁹⁾ 넷째는 ‘아류상 群島’ 남방에서 난파당한 옥*(玉*) 환(丸)이 여양(麗洋) 환(丸)에 의해 예인되다가 질풍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선체는 포기되고 승조원(乘組員) 42명만 구조되었다는 내용이며,³⁰⁾ 다섯째는 인도국민회의파의 총수 마하도마 간다가 봄베이에서 관헌에 체포되어 중앙형무소에 수용되었다는 보고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적 년센스 役者’인 ‘骸骨人形 간디와 英政府와는 또 무슨 시비이를 할른지’라고 언급하며 냉소적 어투로 반응한다.

이상 다섯 가지 무전신문의 보도와 그에 대한 반응들은 시각이 다양하고 문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영(英)·미(米)·불(佛)과 일본

29) 그 뒤의 구절은 삭제되었다는 표시가 있다. 이는 자체 검열로 추정된다.

30)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인용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의 충돌에 대한 선내 선원들의 반응을 바라보는 홍운봉의 시선이다.

毎日 日中軍 衝突의 無電新聞을 전할 때마다 一同은 戰爭說論으로 실내에 空氣를 흐리게 한다. 『우리 日本은 英, 米, 佛 등 세계를 相對로 하여도 다이조-부라고』 한다. 『英米가 安만 精備한 軍艦, 大砲, 飛行機를 가졌다해도 무섭지 않다. 전쟁은 사람이 한다. 즉 아마도다마시이로 우리들은 싸운다. 그 意氣! 그들은 『미구니노다메』 싸오는 거시 國民의 義務이요 戰場에서 죽는 거시 第一名譽로 안다.³¹⁾

이처럼 선박 안의 ‘설론(說論)’의 주체는 ‘우리 일본은’이라고 말하는 일본 선원이다. 영국과 미국이 군함, 대포, 비행기 등 전쟁 무기의 우월함을 내세우지만 일본은 사람의 정신력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죽는 것이 국민의 의무요 영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홍운봉은 ‘그 의기!’ 혹은 ‘그들은’이라고 지칭하며 일본 선원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한다. 제국주의 전쟁을 바라보는 홍운봉이 이러한 서술자적 거리 설정이 가능했던 것은 홍운봉이 고베(神戸)를 모항으로 하는 일본 선박의 선원이지만 그가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상에서 난파되는 네 번째 무전신문에 대한 홍운봉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難破船! 航海中 附近遭難船에서 S.O.S를 受信하면 國籍을 물론하고 救助에 노력한다. 難破船! 最後의 斷末魔의 悲鳴! 悽慘한 絶叫!

老朽船이 沈沒되면 船主는 祝盃를 올린다. 웨? 保險金額이 船價格보다 幾倍나 收入이 됨으로—貨物엔 貨物保險—船主들은 乘組員이 죽으나 살으나 無關心이다. 1錢 5厘의 葉書 1枚면 失業船員이 海XXX會로부터 얼마든지 공급을 받게 됨으로—³²⁾

31) 홍운봉, 『印度洋上에 날리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 『삼천리』 제4권 제5호, 1932.5.15.

홍운봉은 첫 번째 무전신문 기사인 '8중산(重山) 환(丸)의 역사자와 생존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는 선원의 가족들은 불만을 표출하지만 선원들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용문에서는 난파선 최후의 단말마의 비명과 처참한 절규를 환기하며 스스로의 불안감을 투영시켰다. 그리고 다음에는 선주(船主)들의 상반된 모습에 대해 서술한다. 선주들은 노후선이 침몰되면 오히려 촉배를 올린다. 배의 가격보다 몇 배나 되는 보험금을 타기 때문이다. 선주들은 '승조원(乘組員)'의 생사에는 큰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1전(錢) 5리(厘)의 엽서(葉書)'만 쓰면 실업 선원을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난파한 배에 탄 선원들의 절규와 선가(船價)보다 몇 배의 보험금을 타게 된 선주의 환호가 선명하게 대조되어 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앞과는 달리 선원들의 안타까운 최후를 명백하게 부각시킨 것도 선주들의 교활하고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수사적 전제였다고 볼 수 있다.

3) 배 위에서의 일상과 상념

홍운봉 항해 여행기에서 항구와 무전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마도로스이기 때문이다. 항해하는 배 안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기보다는 무료한 나날이 반복되기 마련이다. 이때 항구와 무전신문은 하나의 특별한 사건일 수 있다. 배 안에서의 일상은 평범한 것이지만 홍운봉에 의해 특별하거나 보편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배 안의 일상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이 고지소(御馳走)의 모습이다. 고지소는 일주일에 한번 씩 특별한 음식이나 과자를 대접하는 것

22) 홍운봉, 『印度洋上에 날리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 『삼천리』 제4권 제5호, 1932.5.15.

이다. 이때에는 20살에서 40살에 이르기까지 선원들 모두가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과자를 받은 것처럼 좋아한다. 이럴 때도 홍운봉은 만족하도록 충분히 먹게 해주지는 않는 선주의 인색함을 지적함으로써 유산자 계급에 대한 냉소를 숨기지 않는다.³³⁾

그리고 배 안에서의 노동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화부(火夫)는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잠시도 정지하지 않고 기관에 불을 때야 한다. 홍운봉은 그것을 미화하거나 객관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海上에도 資本主義의 搾取勞働은 連續하고 있다.’라며 자본가의 노동착취 상황으로 해석한다. 이 연장선에서 일요일인데도 작업을 명령하여 불만이 폭발한 일을 지적하고 있다.

中間階級 즉 船主의 代辯人인 高級船員은 汽船會社로부터 준 權利를 下級船員에게 無理이 行使하여 作業의 能率를 올니게만 하면 彼等の 成績은 조와지고 船主에게서는 優待를 받는다.³⁴⁾

인용문에서 배 안의 중간계급인 고급선원은 작업 능률을 올리라는 선주의 명령을 받아 하급선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점을 언급한다. 덧붙여 이로 인해 선주에게서 우대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사실에 대해 홍운봉은 배 위의 일상이 선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를 계급 관계 차원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선량한 수부장(水夫長)’을 소개한다. 수부장(水夫長)은 말라리아 병에 걸려 10여 일을 병상에서 신음하여 선원들의

33) 배가 주로 熱帶地方을 지나가기에 碇泊할 때나 航海할 때나 차이는 없다. 다만 항해중일 때는 간간이 갑판을 씻어주는 바람이 천금에 비할 만하다고 만족해한다. 그리고 견망당번(見望當番)이 울리는 종소리에 항해의 밤이 깊어간다. 중간 중간 위도와 경도로써 배의 위치를 지적해주고 구름의 정도, 대기와 해수의 기온, 바람 등을 기록해준다. 파도가 높아 기체의 동요가 심하다고도 말한다. 홍운봉, 『印度洋上에 날리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 『삼천리』 제4권 제5호, 1932.5.15.

34) 홍운봉, 『印度洋上에 날리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 『삼천리』 제4권 제5호, 1932.5.15.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반백이 되도록 인생을 바다에서 보낸 인물로서 젊은 선원들에게 선량한 인간으로 보였다. 홍운봉은 그를 노동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할 줄 모르기에 윗사람의 명령이라면 좋거나 나쁘거나 절대 복종하는, 반항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임을 지적한다. 그런 그는 배 위의 중간계급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홍운봉은 끝 부분에서 ‘무엇이 그 사람을 그와 같이 만들었는가?’라고 되묻는다. 이 물음은 홍운봉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독자에게 일상의 표면에서 머물지 말고 더 깊은 곳을 성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듯 배 안에서는 비슷한 나날이 반복되지만 세모와 초하루는 특별하다. 변화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바다 위에서 새해 아침에는 먹고 마시고 소리 지르며 신년을 축하한다. 이에 대해서도 홍운봉은 신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도와 싸우며 고기를 잡는 어주(魚舟)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新年도 업슬 줄 안다. 먹기 위하야? 살기 위하야? 解筭기 難하다.’라며 이 특별한 일상에 대해서도 스스로 성찰해보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3. 홍운봉 항해 여행기의 서술 기법과 그 시각

1) 갈등 관계의 부각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는 배 안의 정경과 일상을 중심자리에 놓고 서술한다. 배안은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 관계가 선명하고도 긴장감 있게 제시된다.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의 서술 특징은 사람을 세 계층으로 나눈 것이다. 이는 선주를 비롯한 상층과 선주의 명을 받고 하층을 지휘하는 중간 계층, 그리고 배 안의 대부분 노동을 담당하는 하층계층으로 구분된다. 이때 선주는 배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환기될 뿐이다. 부재한 선주를

대신하여 중간계층이 위력을 발휘하고 이로 인해 하층계층의 감정을 유발한다. 중간계층은 부재한 선주가 배 안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대리인으로 나타나며 배 안에서 세 계층의 대립과 갈등이 팽배한다. 이러한 갈등양상은 자본주의가 관철되는 땅 위의 상황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계급 갈등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홍운봉은 이러한 부분을 점을 빈번하게 언급하고 암시한다. 홍운봉에게 있어 배 안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하여 육지 상황이 병치된다.

華嬌奸商의 중간착취로 인하여 本土人에 경제력이 점점 미약하여 감은로— 此港도 교통기관만은 朝鮮보다 편리하다. 이와 가튼 小都市라도 정돈된 市區 하수도 아스팔트에 도로 소리업시 닳는 자동차 朝鮮 首都 京城보다 교통기관만은 발달되었다. 편리한 교통기관도 殖民地 人民을 위하야는 아니다. 享受하는 者는 다만 殖民地 뿌르조아지와 그들 뿐이다.³⁵⁾

인용문에서는 남태평양 항구들에서 목도한 계급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국 제국주의 부르조아지가 상층계급이라면 화교간상(華嬌奸商)들이 중간착취를 자행하는 중간계급이고 마침내 오직 수탈만 당하는 식민지 인민들이 존재한다.’ 홍운봉은 이와 같은 사람 사이의 계급적 갈등 관계를 배 안의 관계와 정확하게 대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관계가 반복됨을 지적한다.

이렇듯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는 배 안에서와 땅 위 사회에서 구축되어 있는 갈등관계를 중립적 시선에서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있다. 이 점은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가 지닌 개성 있는 서술시각이라 할 수 있다.

35) 홍운봉,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3.1.

2) 상반된 풍경의 대조 및 병치

항해 여행기를 접할 때 독자들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대는 배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낭만적 풍경일 것이지만 홍운봉의 여행기에서 낭만적 바다 풍경을 찾기는 어렵다. ‘波濤가 높흔 故로 船體의 動搖가 심하다.’거나 ‘南支那海沿岸에는 元旦이라도 漁舟는 波濤上에서 風波와 싸으면서도 漁網을 끈다.’처럼 파도가 높은 바다에 대한 간략한 보고만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홍운봉이 마도로스이기 때문에 시선이 배 안으로 돌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바다를 건너 육지 쪽의 정황이나 사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다 풍경 대신 여행기 세계 속으로 들어온 것이 항구의 풍경이다.

우리들은 歸船의 길을 빨리 하얏다. 馬來人의 고전적인 악기의 슬픈 音調가 멀리로부터 椰子나무 그늘 사이로 흘러올 뿐이다. 椰子林속으로 떠오르는 명량한 半月의 빛은 沈澱한 港內를 빛치올 뿐이다.³⁶⁾

인용문은 바다와 육지의 접점으로서의 항구의 풍경이다. 이때서야 홍운봉의 시선은 낭만적 여유를 갖고 풍경으로서의 대상을 포착하여 편안하게 서술하고 있다. 운항 중일 때는 매일 긴장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항구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풍경을 향하여 여유 있는 시선을 옮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평화로운 항구의 풍경은 『印度洋上에 날니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삼천리』 4권 5호, 1932. 5.15.)의 후반부에 실려 있는 ‘마제랑’ 해협 통과 과정의 풍경과 대조된다.

疾走하는 바람은 『리진』(梯索)을 올리고 船首를 삼키는 山가튼 怒濤는 間繼업시 甲板을 씻는다. (중략) 咆哮하는 바람—旋渦波가 亂錯하는

36) 홍운봉,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3.1.

海面—(중략)如斯이 숨막키는 바람과 난폭이 포효하는 물결과 우울한 霧雨 중의 『웨고島』Fuego를 우현에 바라보며 점점 태평양으로도 설사 록 바람은 나저가고 修羅場을 일우든 怒濤는 간 곳 업고 해면의도 소條한 보드러운 雨槽는 부질업시 나린다.³⁷⁾

여기에서 바다는 선원을 생사의 기로를 헤매게 하는 사나운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대조는 마도로스로서 경험하는 바다 여행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홍운봉에 의해 과장된 부분이기도 하다. 홍운봉은 바다와 항구의 대조를 과장함으로써 대중의 호기심을 극대화하는 유연한 서술 감각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은 바다와 대조된 항구에서의 경험을 묘사할 때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나운 바다와 평화로운 항구가 가장 큰 규모의 대조라면 배가 항구에 기착하고 난 뒤에는 그보다 작은 규모의 대조가 서술된다. 먼저 모국의 신간 잡지, 부모, 아내와 자식, 애인에게서 온 편지를 받아 보고 기뻐하는 선원들과 그렇지 못하고 낙심하는 선원들을 극명하게 대조시킨다.³⁸⁾ 다음으로 배 안의 풍경과 항구의 풍경이 대조된다. 그리고 이방인인 마도로스의 입장에서 고향 혹은 고국 풍경과 항구의 풍경이 대조된다.³⁹⁾ 이러한 대조적 구성은 특별한 사건 없이 단조롭게 진행되는 항해의 경험을 독자들에게 역동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홍운봉이 착안한 의미 있는 서술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37) 홍운봉, 『印度洋上에 날리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 『삼천리』 제4권 제5호, 1932.5.15.

38) “여러날 된 편지와 신간잡지가 新嘉坡支店서 回送되었다. 母國의 소식을 전하는 신간잡지와 父母妻子 또는 애인의게서 온 편지를 보고 깃버하는 사람—一枚의 엽서도 못 바다 보고 낙심하는 사람도 생긴다.” 홍운봉,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3.1.

39) “此港도 交通기관만은 朝鮮보다 편리하다. 이와 가튼 小都市라도 정돈된 市區 하수도 아스팔트에 도로 소리업시 닳는 자동차 朝鮮 首都 京城보다 交通기관만은 발달되었다.” 홍운봉,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3.1.

3) 탈조선의 서술시각

배가 기착한 항구에서의 견문, 무전신문의 독서, 배 위에서의 직접 견문 등을 통해 홍운봉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제국주의 전쟁과 자본주의의 모순의 발견이다. 이를 통해 홍운봉은 무산노동의 설움과 유산자의 수탈상을 부각하고자 한다. 즉, 민족 모순보다 계급 모순을 더 비중 있게 포착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홍운봉은 식민지인 조선을 떠나 낯선 나라로 항해를 떠나는 마도로스였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벗어난 자리에 있었다. 이로 인해 식민지 조선 현실에 대해 지나치게 구애되지 않았다. 그에게 조선 현실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소식으로 재구성되는 관념성이 강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의 항해 여행기 속에서 조선 현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홍운봉이 인도인이나 말레이시아인의 비참한 현실을 간절하게 고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 현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홍운봉 스스로가 자신을 일본인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하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반목을 냉철하게 비판하며 평화의 길을 모색한다.

홍운봉의 이러한 태도는 이 시기 『삼천리』의 편집자 김동환이 내세우던 민족관계에 대한 생각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동환은 논쟁의 중심에 서거나 정면으로 공격당하는 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좌파’와 ‘우파’, ‘민족’과 ‘세계’, ‘문화’와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이로써 민족끼리 혈투지 말자는 큰 슬로건을 내세웠으며 그것이 1930년대 대중잡지인 『삼천리』를 존속시켜 간 전략이기도 했다.⁴⁰⁾ 이렇게 민족 관계에 대한 홍운봉의 생각이 김동환의 사고에 근접했다는 점이 우연의 일치인지, 『삼천리』 편찬의도의 관

40) 장영은, 『금지된 표상, 허용된 표상: 1930년대 초반 『삼천리』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2집, 상허학회, 2008, 206쪽.

철인지는 자료가 부족한 지금으로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삼천리』에서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를 거부감 없이 게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편, 이민족에 대한 이와 같은 관대한 시선과는 달리 항해 여행기 곳곳에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인들이 무산노동자를 착취하는 중간계층 노릇을 한다는 점이며 다음으로는, 중국은 만주사변 등에서 일본과 전투한 민족이었다는 점이다. 전자는 계급적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민족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홍운봉 여행기 전편의 흐름에 잘 부합하는 것이지만 후자인 민족적 해석도 주목된다. 앞 장에 제국주의 전쟁을 두고 일본 선원들과 타국 선원들이 논쟁하는 것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홍운봉이 일본 선원들과도 거리를 두고 그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일본 국적 선박의 선원이었으며 항해의 끝에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모향을 고향으로 감지하며 안도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홍운봉은 계급 갈등에서 명백하게 무산노동자의 시선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민족 갈등에서는 조선의 자리를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⁴¹⁾

이렇듯 홍운봉 항해 여행기의 서술시각은 그가 식민지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일본 선박의 선원이 되고, 마침내 그곳으로부터도 벗어난 바다를 일상적으로 여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겨난 개성 있는 서술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여행기에는 조선인의 시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탈조선인의 시각을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 좀 더 거시적이고 중립적이

41) 홍운봉은 매춘부 여성, 하급선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연민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선주나 자본가, 중국인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나 이 부분에서 스스로를 중국인보다 일본인의 시선에 가깝게 묘사했다는 것은 홍운봉의 시각에 일본인의 시각이 내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지면을 달리하여 다룰 것이다.

면서도 자신만의 시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의 내용적 특징과 서술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는 필자가 항해를 다니면서 당시 노동의 문제와 시대 상황을 포착하고 제국주의의 모순과 자본주의의 양면성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홍운봉은 조선인이면서 조선 밖에 있기도 하는 ‘경계인’으로서 제국주의 모순 상황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홍운봉은 마도로스라는 직업상 다양한 국제도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개성 있는 시각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항해사이기 때문에 조선 바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그는 식민지 조선인이면서 끊임없이 낯선 외부 세계로 향하는 ‘탈조선인’이었다. 이로 인해 식민지 조선인이면서 동시에 세계인의 시선으로 제국주의를 경험하였다. 홍운봉의 여행기에는 배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 속에서 경험한 일들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식민지 제국의 양면성을 경험할 수 있다. 홍운봉의 여행기는 단순히 개인의 느낌과 감정 표출에 국한하지 않고 제국주의 침략 및 사회모순에 대한 보고와 고발이 나타난다. 그의 여행기에는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주의적 경향보다는 계급의식에 대한 불만과 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가 강하게 담겨 있다. 그는 강한 자와 약한 자, 강대국과 약소국, 침략자와 침입자, 자본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등으로 끊임없이 나누어 그 사이에 담겨 있는 폭력과 권력의 모순을 고발한다.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에서는 자신이 지닌 계급 문제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印度洋上에 날리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에서는 다섯 번에 걸쳐 무전신문의 주요 소식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며 자본 권력의 모순에 대해 자세히 비판한다.

여행기 전편에서 홍운봉은 일본 선원들과도 거리를 두고 그들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그가 일본 국적 선박의 선원이라는 점, 항해의 끝에 일본으로 돌아가며 안도하는 부분을 볼 때 홍운봉은 계급 갈등에서 명백하게 무산노동자의 시선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민족 갈등에서는 조선의 자리를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의 서술시각은 그가 식민지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일본 선박의 선원이 되고, 마침내 그곳으로부터도 벗어난 바다를 일상적으로 여행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생겨난 개성 있는 서술시각이라 할 수 있다. 당대 대부분의 여행기가 ‘피식민지 조선인’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에 반해, 항해사였던 홍운봉은 조선(인)에서 벗어나 세계(인)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로 인해 그의 여행기에는 조선인의 시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탈조선인의 시각을 지닐 수 있었고, 좀 더 거시적이고 중립적이면서도 독특한 시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서술시각에 의한 항해 여행기는 내용 면에서나 서술형식면에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문단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글쓰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홍운봉의 항해 여행기가 가지는 독특한 자리이며 그런 점에서 그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참고문헌

- 홍운봉, 『印度洋上 마도로스 되어』,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3.1.
- 홍운봉, 『印度洋上에 날니는 旗, 布哇에서 印度洋으로 航海記』, 『삼천리』 제4권 제5호, 1932.5.15.
- 홍운봉, 『各國 港口의 獵奇行, 南米 「리오港」』, 『삼천리』 제7권 제1호, 1935.1.1.
- 홍운봉, 『各國港口의 獵奇行 佛國馬耳塞港』, 『삼천리』 제7권 제5호, 1935.6.1.
- 김효주, 『1920년대 여행기의 존재 양상』, 『국어교육연구』 48집, 국어교육학회, 2011, 317-354쪽.
- 김효주, 『1920년대 여행기에 나타난 미국 인식과 표상-허헌·허정숙의 미국 여행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9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33-57쪽.
- 박명규, 『해양 마케팅의 마도로스 대중가요에 대한 역사적 고찰-조선·해운을 중심으로』, 『연구논문집』 8집, 한국해양대학교 부설 해양과학기술연구소, 1999, 3-38쪽.
- 성현경, 『1930년대 해외 기행문 연구:삼천리 소재 해외 기행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164쪽.
- 이경돈, 『삼천리의 세(世)와 계(界):설문과 순례의 서사들』, 『대동문화연구』 4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310-340쪽.
- 장영은, 『금지된 표상, 허용된 표상 : 1930년대 초반 『삼천리』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2집, 상허학회, 2008, 195-232쪽.
- 조현범, 『문명과 야만-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책세상, 2002, 42-43쪽.

천정환, 「초기 『삼천리』의 지향과 1930년대 문화민족주의」, 『민족문화사연구』 36쪽, 민족문화사학회, 2008, 204-235쪽.

허민, 「『삼천리』 편집후기의 텍스트성과 ‘대안적 공론장’으로서의 대중잡지」, 『민족문화사연구』 50쪽, 민족문화사학회, 2012, 337-364쪽.

홍순애, 「총력전체제하 대동아공영권과 식민정치의 재현 : 『삼천리』기행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3쪽,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307-328쪽.

<Abstract>

Study on Navigation Travel Journal
〈Samchully〉 inserted by Hong Woon-bong

Kim, Hyo-joo

This thesis aims at introducing navigation travel journal by Hong Woon-bong and analyzing its value and significance that have not been known so far. Navigation travel journal of Hong Woon-bong has been examined first in its contextual structure with its narrative type and perspective having then been analyzed. And through this, the significance of Hong Woon-bong's navigation travel journal was contemplated.

The navigation travel journal by Hong Woon-bong captured labor problem and state of period of that time while sailing around and exposed contradiction of imperialism and ambilaterality of capitalism. He was a navigator from Japanese colonial Chosun(old version for Korea) who might spend more time out of the country as well as an out-of-boundary Chosun person(old version for Korean). This made him experience the imperialism as a colonial Korean with an eye of colonial Korean as well as a global person. The navigation travel journal of Hong Woon-bong contains aspects of people who he met and matters he experienced on board, through which he could experienced ambilaterality of colonial empire.

In addition, we can peek through sense of classism he retains.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 feature appearing in Hong Woon-bong's

narrative perspective can be a specific sight that has emerged from his life which he lead daily sea life.

Hong Woon-bong's navigation travel journal is a type of writing that we could not easily meet with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in its context and narrative form. As such is the case, Hong Woon-bong's navigation travel journal helps understand social aspect and international situation of 1930s and contains then values and ideology securing specific individual view. This may be judged as the biggest significance that Hong Woon-bong's travel journal has.

Key Words : Hong Woon-bong, <Samchully>, navigator, navigation travel journal, imperialism, capitalism, classism

■ 논문접수 : 2015년 11월 12일
■ 심사완료 : 2015년 12월 4일
■ 게재확정 : 2015년 12월 20일

